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조선소년단 제 9 차대회를 몇달 앞둔 2022 년 9 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소년단 대회를 겨울에 하는데 맞게 대표들에게 오리털솜옷과 겨울신발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미전에 소년단대회대표들에게 새 교복을 잘 만들어입히도록 하였는데 그들에게 겨울옷까지 멋있게 만들어입히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울것이라고 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을 그려보시는듯 따뜻한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겨울에 추위를 막는데서는 오리털이 좋은것으로 알려져있어 오리털솜옷은 고급한 솜옷으로 인정되고있다. 그런 솜옷을 한두명도 아닌 소년단대회대표들 모두에게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다심하신 사랑에 일군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이들을 위해 거듭 베푸시는 크나큰 은정이기에 일군들은 누구라 할것없이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에서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후대관을 천만근의 무게로 새겨안았던것이다.

걱정으로 가슴설레이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소년단대회대표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극한 사랑이 깃든 새 교복과 새 솜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평양으로 모여오게 되였다.

하나같이 멋쟁이이고 의젓한 소년단대표들의 모습들로 하여 12 월의 평양은 마치 화창한 봄계절처럼 밝아졌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당의 은정속에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자라나고 있는 소년단원들의 모습이 더없이 미덥고 사랑스럽게 안겨들었다.